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주의 인자와 진리 성경: 시편 57편

Tag: 교회와 복,

1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 하나님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57:1-11)

다윗은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그는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떼를 치면서 살았다.

다윗의 심성은 매우 성실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는 기타(수금-작은 하프, 비파-기타처럼 생김)를 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사무엘에게 발탁되어 사울왕앞에서 수금을 연주했다.

그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시인이며 음악가였으며, 독실한 신앙인이었으며, 영웅이었고, 정복자였고, 왕이었고, 정치가였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았고, 결국에는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정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반정부 세력은 있는 법. 사울왕 시절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 졸지에 다윗은 거지왕 다윗이 되었다. 다윗의 거지왕 생활이 장장 10년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긴 세월일 줄 몰랐을 것이다. 그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사울왕의 마음의 병이 고쳐질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된다.

오늘 시편은 아직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있던 때 지은 시이다.

아마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군사들과 함께 다윗 소탕작전을 벌이다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와 잠시 쉬어 가기로 한 모양이다. (삼상24장;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황상 잠시 쉬러 들어갔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 정황상 그 굴은 넓고 깊었을 것이며, 목동들이 그 안에서 생활할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 중에도 그렇지만 서로 자신들이 잡은 권력을 놓치지 싫어서 상대방의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데 있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충동질하는 부하들을 잠재운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부하들의 말을 잠재우지 못한다.(여기에 카리스마가 엿보인다. 다윗의 정의 앞에는 하나님의 의가 버티고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건다. 물 한모금이라도 정의롭지 않으면 먹지 않음. 전쟁터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그리워했던 다윗.)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을 잘라내지만, 그마저도 죄책감이 들어 후회한다.

사울이 일어나 나간 후 다윗은 따라 나가서 사울왕에게 자신을 해치라고 조언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부탁한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왕을 대적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가부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울면서 내 아들(사위임) 다윗아. 이게 진정 너의 목소리냐. 하면서 울었다. 너는 선으로 악을 갚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믿는다. 그런즉 너는 내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다오. 다윗이 맹세하고 두 사람은 헤어진다. 다윗은 정말 그 후손을 도와 멸하지 않도록 하였다.

1...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
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1-2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
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천사의 이름은 인자와 진리이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시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
의 형상이다. 다윗은 억울함 중에, 사방에 자기를 해치려는 무리들로
가득한 중에, 도망하고 쫓기며 피곤하고, 가난하고, 평안히 쉴 곳 없
는 중에 이 두가지를 갈망하였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두가지를 놓치지 않았다. 편하고 부요할
때 이 두가지를 이루어야지, 이처럼 내 코가 석자인데 어찌 인자뿐
아니라 진리까지 논할 것인가? 인자는 좋지만, 진리는 아니지 않는
가? 나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리를 붙드는
것이 다윗의 간지. 마지막 자존심?

상대방이 불법과 노략과 무자비와 거짓과 비방과 모략과 무고로 나
의 생명을 없애려고 달려드는 상황에 내가 그들에게 진리 뿐 아니라
인자까지 베풀어야 하다니.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때야말로 진정 인자와 진리가 필요한
때이다. 가장 인자한 것이 가장 진리에 가깝다. 이 둘은 자석의 양
극이다.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없다.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가장 훌륭한 전술이라면, 적을 감동시키고 적의 적대적 의지를 무산시키고 적으로 하여금 축복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 전술(신의 한수)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고, 거기에 화답하였다. 쉽게 판단하기에는 윤리적인 이유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윗은 인자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즉, 자기 스스로를 인자와 진리 된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나는 인자한 자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인자를 베풀리라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었고, 그 믿음의 확증으로 자신도 하나님을 닮아 인자와 진리를 베풀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과 정적 사울에게도 감동과 은혜가 넘치고 사울왕도 살리고 다윗도 살고, 악한 신하들은 부끄럽게 하였다.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들이 그물을 준비했으나, 도리어 하나님이 쳐 놓은 인자와 진리의 그물에 빠졌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더 확증하게 되었다.

7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이후로는 유명한 찬송으로 신앙고백이 담겨있다. (이 노래는 시편 108편에 반복된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명예honour’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영혼’ 보다는.)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일깨운다. 마치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자신의 honour을 깨웠다.

다윗이 공명심이 발동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사람이었다.(골리앗) 진정한 남자라면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 놓는다.

신약성경적인 용법은 ‘하나님의 의’를 뜻한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목숨 보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일깨운 것이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
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노래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하늘에 비유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노래를 지을 때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짓지 않았나 짐작된다.

하늘(샤마임)은 높고 넓은 하늘을 뜻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측량할 길 없이 광대함을 노래한 것이고,

궁창(세하킴)은 ‘하늘에 흩뿌려놓은듯한 구름’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떠다닐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물질만큼 꼼꼼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정확하심을 노래한 것이다.

11 하나님이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은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57:1-11)

그러니 온 세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영광을 돌려야 할자는 없다는 신앙고백이 절로 나온다.

다윗의 이런 신앙고백과 충성심이 오늘 우리가 흠모하고 일깨워야할 성품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의인의 소망 성경: 잠언 10장

Tag: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기쁘게 하거
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2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3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4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
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
느니라

7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
는 멸망하리라

9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10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
느니라

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
느니라

12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
라

13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나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16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8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나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2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곱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3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4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나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5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26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27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28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 여호와와 의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30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31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10:1-32)

*지혜로운 아들이 되자.(1)

-지혜는 갈망하며 열심히 추구해야 얻을 수 있다.

-미련할수록 인생이 고달파지며 시간을 되풀이하며 낭비하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

-지혜는 얻는 방법이 따로 있다.

#지혜를 얻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1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빨리 망할 수도 있으니 주의요망. 맨날 망함)

2 경험한 자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또는 지혜로운 자 뒤를 따라 다닌다. 나도법 따라쟁이 같이 망할 수 있으니 주의요망)

3 잘 가르치는 스승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 (잘 가르치지 못하는 스승도 있으므로 주의요망)

4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지혜를 배운다

5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역시 영터리 책도 많으니 주의 요망)

6 성령을 받고 지혜를 얻는다 (성령은 지혜의 영:잠언 자체가 지혜

를 인격화 시키고 있다. 지혜라는 단어에 성령님을 대입시키면 진짜 의미가 전달된다. 특히 잠언 8,9장)

*하나님의 의를 익히는 것(3)

-사람만의 의는 불의;어떤 이유가 붙든 그것은 의가 아니다.

-오직 모든 의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붙어야 한다.

-그러나 내 의에 하나님의 의를 덧씌우는 자도 있다. 스스로를 속이는 셈.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불행한 소수), 자유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 차별 없는 평등,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기회의 평등; 공의-공평, 평등) 공동선(그야말로 개인의 선을 목소리 큰 사람이 외치는 것 아닌가?)

-정의는 신의나 인의냐로 나뉜다. 신의가 우선, 정의는 신의를 따르는 것. 신의만 선, 인의는 악.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것이 곧 정의이다. (2절)

-베트남의 처녀를 한국 50대 남성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임.

-4대강 사업이 정의인가? 환경파괴인가?

-자연 그대로가 정의인가? 치수가 정의인가? 김병만은 왜 가는 곳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집을 짓는가?

